



# 라온아띠 방글라데시팀 December Report

JEONG-RAE NOH, JI-HYUN CHOI, DO-EUN KIM, KYUNG-WON CHOI

한달간의 소중한 기억들

# 월간 일정-활동 내용-방 팀 이야기-개인 소감

Mon	Tue	Wed	Thu	Fri	Sat	Sun
						1 -New village Youth member survey -Taekkyon class
2 -Dahapara school -Learning Garo dance	3 -Dahapara school -Korean class	4 -world vision visit -Movie showing	5 -Dahapara school -Practicing Garo song	6 Holiday	7 Holiday	8 -New village Youth member survey -Taekkyon class
9 -Dahapara school -Prepare sports day	10 -Dahapara school -Cultural exchange class	11 -Cleaning Program -World vision pre christmas -movie showing	12 -Dahapara sports day	13 Holiday -YWCA pre christmas	14 -Carol practice	15 -Distributing Christmas letters
16 -YMCA Pre Christmas party meeting	17 -Dahapara school -Welcoming party	18 -Cleaning campaign Compassion Pre Christmas party	19 -YMCA Pre Christmas party preapare	20 Holiday -YMCA Pre Christmas party	21 Culture exchange program	22 -
23	24	25	26	27 Holiday	28	29
30	31	1	2	3		

12/21~1/3 YMCA 공식 휴일

# 방글라데시에서의 활동



## 활동 내용\_ World vision 방문

- 월드비전은 비리시리에서 규모가 큰 NGO들 중에 하나이며 라온 아띠들 역시 한국에서도 이름을 익히 들어본 단체였다. 우리는 이 곳에서 실무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월드비전의 역사, 방글라데시, 비리시리 월드비전의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 비리시리 월드비전은 어린이에 대한 교육 스폰서쉽, 자연재해 지원, 식량지원, 농업개발, 소득증대, 교육, 주민 역량 강화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일조하고 있다.
- 인터뷰를 통해 월드비전의 역할, 비리시리 지역 사회의 문제점 등을 알 수 있었으며, 지역사회를 이해함에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한다.



## 활동 내용\_ Birisiri\_Work at Dahapara NFPS school

- 크리스마스 전 큰 행사로 Dahapara Sports Day를 하기로 결정하여 youth들과 다른 마을 사람들 그리고 Dahapara 학교 학부모들을 초대해 행사를 열었다. 라온과 아띠 두 팀으로 나누어 다양한 게임들을 진행하였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참여할 수 있는 몇몇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다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또한 그 동안 만들어온 미술 창작품들을 전시하고, 율동과 함께 영어 동요 배운 것으로 짧은 공연도 하였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 다하파라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과 더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 학생 뿐만 아니라 모두 학부모, youth, 마을 사람 모두가 참여하는 행사로 기획 진행 하여 학부모에게 수업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 활동 내용\_Cleaning Program

- 비리시리 곳곳 특히 비리시리의 중심에 위치한 우트랄 시장은 쓰레기로 인해 무척이나 더럽고 비위생적이다. 이러한 비위생적인 환경과 환경 개선을 위한 마을 사람들의 인식을 깨우기 위해 우리는 쓰레기 줍기를 정기적으로 하기로 계획하였다. 따로 캠페인을 열거나 배너를 달고 홍보를 하고 할 것 없이 그냥 외국인과 youth member들이 중심가에 나와 쓰레기를 줍기 시작하면 적어도 관심을 보이고, “환경”이라는 이슈에 어느 정도의 아이디어를 줄 수 있지 않을까 한 것이었다.



- 처음엔 라온아띠와 youth member 몇 명 정도를 생각하고 시작 한 것이 아이들과 어른들까지 모두 참여하는 열린 프로그램으로 바뀌어버렸다. 하지만 이렇게 거두어드린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나라는 문제에 우리는 그럴만한 답을 찾지 못했다. 다른 쓰레기 처리 시스템이 없어 일단은 쓰레기를 한 곳에 모아 태우기로 결정하였지만, 장시간 이런 식으로 쓰레기를 처리하면 오히려 대기공기를 오염시키고 나오는 해로운 물질로 인해 주민들 건강을 해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 활동 내용\_Cleaning Program

- 우뜨랄 바자르 Cleaning Campaign은 생각보다 호응이 좋았다. 2주째 부터는 YMCA뿐만 아니라 YWCA까지 이 캠페인에 동참하였다. 앞 전보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참가를 하였고, 모두 자발적으로 참가하였다. 앞 주의 경우에는 왜 청소를 하는지에 대해 물어보고, 외국인인 라온아띠 단원들이 바자르 거리를 청소하는 것을 보고 부끄러워 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외국인들이 청소를 하고 있는 것이 신기해서 인지 여기저기에서 사진을 찍어대는 것을 발견 할 수 있었다. 또, 힘들게 청소를 한 후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더러워진 바자르 거리를 보고 실망도 하였으나, 아직 2번밖에 실시하지 않았기에 지속적인 활동에 희망을 걸어보고자 한다.



## 활동 내용\_Cultural Exchange Class

- 다가오는 크리스마스가 가로족에게 가장 큰 행사임으로 가로 언어, 영어, 한국어 모두 있어 익숙하고 쉽게 배울 수 있는 노래인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첫 수업 내용으로 선택하였다. 노래를 배우고, 노래의 뜻 설명과 함께 가사에 나오는 단어들과 간단한 표현들을 익혀 응용도 해보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 노래는 본래 YMCA pre-Christmas를 위해 배우기 시작한 것은 아니었으나 pre-Christmas 행사에 다같이 부르게 되었다.



## 활동 내용\_Pre Christmas party



- 가로 사회에서는 크리스마스가 큰 행사이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기 전부터 이곳저곳에서 파티를 열었고, 라온아띠 단원들도 여러 행사에 초대를 받아 가게 되었다.
- 한국과는 다른 문화를 체험하고, 다함께 크리스마스 파티 준비를 하면서 가로 사회에 대해 조금 더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다.
- YMCA에서 주최한 파티에서는 노정래 단원이 Youth Member 솔룩 나와 함께 사회를 보고, 나머지 단원들을 Youth member들과 함께 연극을 준비하고, 캐롤을 같이 부르는 등의 행사를 참여하게 되었다.



방팀 이야기

## 방 팀 이야기 \_ 12월의 휴가

12월 23일부터 1월 3일까지는 공식 휴일 이였다. 이시기는 마을 축제기간이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새해를 위해서 파티를 한다. 그리고 매일 킨톤을 연습하는데 킨톤은 동그랗게 서서 춤과 노래를 부르면서 즐기는 거다. 그래서 방 팀은 휴일이지만 다양한 파티와 결혼식을 참여하면서 마을과 그리고 지역주민과 함께 어울리면서 더욱더 유익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 방 팀 이야기

### 오토이 - 도은

그녀는 일단 방글라데시어를 가장 잘한다.  
그리고 방글라데시 사람들과 소통 하려고 노력한다.  
그녀 덕분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잘 진행 할 수 있었다.



### 오심 - 지현

그는 준비성이 철저 하다. 항상 휴지를 들고 다닌다.  
그리고 현실적이고 이성적이다.  
그 덕분에 위급한 상황에서 편안하게 행동할 수 있었다.



## 방 팀 이야기

### 슈보 - 정래

그는 일단 나이가 쯤 많다. 10기 중에서.....  
그리고 그는 운동을 꾸준히 한다.  
그 덕분에 운동을 많이 할 수 있었다.



### 꼴리 - 경원

그녀는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항상 우리를 즐겁게 해준다.  
그리고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고 유스 멤버들과 친하다.  
그녀 덕분에 더 많이 웃을 수 있었다.





방글라데시에서 한달  
그리고 개인 소감

## 개인 소감\_슈보\_노정래 단원

12월은 youth 멤버들과 더욱 친해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휴일이 있었기에 친한 친구들과 더욱더 자유롭게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었다. 이제 배드민턴은 한 명 빼 놓고는 다 이길 수 있는 실력이 되었다. 한 명은 루벨이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는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해도 이길 수 없을 거 같다. 그리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나의 여동생인 똑똑이가 다카에서 왔기 때문이다. 똑똑이는 내가본 방글라데시 여자 중에 제일 예쁜 거 같다. 그리고 엄마 아빠랑 함께 결혼식 그리고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면서 점점 엄마 아빠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한달 이였다. 그리고 이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점점 체감하는 달이기도 하였다.

여기도 날씨가 추워졌다. 한국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체감은 많이 춥다 그만큼 서로서로를 더 챙겨 주는 거 같다. 여기는 마을이 모두 한 가족 같다. 마을 사람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누군가 일이 생기면 모두다 걱정하고 그런 것들이 참 부러웠다. 그리고 이번 달은 여기저기 파티에 가서 참여했다. 파티는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밥 먹는 거다. 같이 경품도 추첨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을이 삶을 공유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 개인 소감\_슈보\_노정래 단원

이번 달 에는 모든 것에 감사함을 느낀다. 친구들과 가족에게 고맙다. 그들이 있었기에 내가 잘 지낼 수 있었고 하루하루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다. 간혹 친구들이 '나 잊을 거지' 라고 물어보는데 안 잊을 거 같다. 행복했던 순간들의 기억과 내가 살았던 흔적들을 가지고 있기에..... 잊지 않을 거라고 말할 수 있다.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아 고맙고~ 덕분에 행복하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 개인 소감\_오심\_최지현 단원

‘3주 있으면 10월이네, 시간 느리네’라고 말했던 게 엇그제 같은 데 새해를 앞둔 지금. 이 곳에서의 생활이 3주 남았다. 다하파라를 가며 아이들에게 인사하는 것도, 집 뒤로 펼쳐진 습상강을 걷는 것도, 우리 호스트 누님이 맛있으면 먹지 말라는 것도, 내 땡깡 받아주는 착하디 착한 유스 멤버들과 함께 노는 것도 나에겐 3주라는 시간 밖에 남지 않았다. 짧은 시간만큼이나 왠지 모를 나의 조급함도 더욱 더 급해지는 것 같다. ‘3주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이 곳 친구들과 더 열심히 놀다 가야지’라는 생각과 함께 ‘3주 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 동안 이 곳에서 무엇을 했나’라는 부끄러움이 함께 앞선다. ‘잘 살다만 오자’는 생각을 가지고 왔지만 나도 모르게 떠 올르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알게 모르게 조급함을 느끼게 하나보다.

시원 섭섭하다. 다시 한국에 돌아갈 생각에 마냥 기쁘지만도 않고 그렇다고 떠난다고 마냥 슬프지만도 않다. 다만 앞으로 남은 3주. 아름답고 좋은 기억들만 고이고이 감싸서 내 마음 한구석에 꼼꼼 숨겨 놓고 싶다. 훗날 한국에서 이 마음, 이 기억, 이 느낌들 내가 쟁여놓고 먹는 키챗만큼이나 조금씩 아껴서 추억하고 싶다.

이 곳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지, 라온아띠는 어떤 의미로 이곳 사람들에게 다가왔었을지 궁금하다.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우리들을 잊지 않았으면 나 역시도 지금을 잊지 않았으면 싶다. 그러하다.

## 개인 소감\_오토이\_김도은 단원

소복이 쌓인 눈, 곳곳에서 흘러나오는 캐롤, 크리스마스트리와 캔들로 빛나는 따뜻한 집..... 이런 서양적인 크리스마스 풍경을 먼저 떠올리는 나로서는 가로 전통의 크리스마스를 상상할 수 없었다. 매일 밤 모두 한 곳에 모여 kirton을 부르는 마을 사람들을 보며 얼마나 당황스럽고 즐거웠는지 모른다. 누구나 따라 출 수 있는 가벼운 스텝들과 노랫가락을 함께 즐기며 참으로 비리시리답구나 라고 생각했다. 그러면서도 내 마음을 다하여 이 축제를 즐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또 아쉬움이 남는다.

한참 날씨가 추워지고 안개로 모든 것이 흐리게 보이던 한 달 이었다. 지금 돌아보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빴는지도 안개처럼 흐릿하게 기억할 뿐이다. 도시에서 돌아온 사람들로 마을 시장은 더 활기차졌고 조용하던 마을이 조금 봄비는 듯 했다.

## 개인 소감\_오토이\_김도은 단원

새로운 얼굴들을 알아가는 것이 즐거웠고, 고마운 사람들과의 크리스마스 선물 나눔으로 들떴었고, 늘 이곳 저곳 초대에 발품을 파느라 바빴다. 그리고 이렇게 즐겁게 크리스마스를 즐기면서도 이제 곧 이별할 것들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이제 RaonAtti 활동 기간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 정말 이 곳에 와서 우리 무엇을 하였나 생각해 보면 사랑 받고, 그 사랑에 반응하고, 또 사랑을 하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여 무엇을 남기거나 무엇을 시작하는 데에 너무 서두르지 않으려고 한다. 하루하루 느리게 밥을 지어먹고, 이웃 집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고, 모두 모여 축제를 즐기고 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마을 사람들의 자부심에 우리가 무언가를 더 없거나 덜거나 할 자격은 없다. 다만 오는 해에도 내 애정이 닿은 이 장소와 사람들에게 더 많은 행복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왔으면 하는 바램이다. 2013년 끝 자락에서..... 내 인생에 이런 소중한 추억을 선물 받았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할 일이다.

## 개인 소감\_폴리\_최경원 단원

12월 언젠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하는 마음에 한 마을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몇 가지 질문을 간추려서 조사를 하던 중 한 아주머니께서 피부병과 구순구개열을 앓고 있는 아이를 데리고 오셨다. 우리의 조사는 단지 마을의 아이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혹은 이 마을에 라온아띠가 필요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방문한 것이었는데 그 아주머니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아이를 보여주고 싶다고 데리고 오셨다. 마을을 방문하기 전 이런 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마을주민들이 우리가 무언가를 해줄 것이라 기대를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 아주머니께서 아이를 보여주시며 자신의 집으로 가서 조사를 해달라고 하셨다. 그에 우리 팀은 응하지 않았고, 조사를 마쳤다. 그 아주머니가 원하는 것은 아이를 고쳐줄 수 있는 것이었지만, 우리에게겐 그럴만한 힘도, 능력도 없었고, 만약 우리가 그 조사에 응하게 되면 헛된 희망만 품게 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물론 응하지 않는 것이 잘한 것이라 생각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미안한 마음이 생겼다. 말로써, 글로써 설명하기는 힘든 복잡한 마음이었다. 이런 마음을 예전에 한번 느껴본 적이 있었다. 몇 년 전 한국에서 여행을 다녔을 때 한 아저씨가 구걸을 해온적이 있었다. 그 때 당시 나는 돈을 주지 않았었다.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이렇게 구걸 하고 다닐 시간에 일이라도 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었다.

## 개인 소감\_폴리\_최경원 단원

그렇게 그 곳을 빠져나간 후 많이 후회를 했었다. 이렇게 마음이 안좋을 줄 알았다면 돈을 조금이라도 줄 걸... 괜히 미안했고, 후회가 되었었다. 조사를 마치고 나서의 기분도 이때와 비슷했다. 계속 생각나고 계속 후회되고...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가 정말 내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단지 조사와 돈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었다. 머리로만 상대방을 이해해야한다라는 말을 하고 다녔지만 실상은 상대방을 이해하지 않았고, 내 시선으로, 내가 살아온 환경에서 타인을 이해한 것이었다. 구걸했던 아저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그때 당시 일거리를 찾아서 좋게 살지라는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지금와서 생각을 해보니 나는 그 사람의 삶을 모르고,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모른 채, 나의 시선에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있었다. 나는 항상 갖은 자는 가지지 못한 자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갖은 자라는 것을 항상 권력을 가진자 그리고 재벌과 같은 사람들 혹은 어떤 상황에서는 좋은 대학을 다니는 사람들이라 생각을 했었고, 가지지 못한 자를 나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었다.

## 개인 소감\_폴리\_최경원 단원

그러나 이 일을 계기로 생각을 하면서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가진자와 가지지 못한자. 이것은 분명 상대적인 개념일 뿐이었다.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었다. 어느 순간에는 내가 가진자가 될 수도 있었고, 가지지 못한 자가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내가 가진자의 입장에 되었을 때는 나조차도 가지지 못한 자를 이해하지 못했다. 항상 다른 사람을 이해해야 한다하면서도 정작 내가 가진자가 되었을 때는 나의 시선에서, 내가 살아온 환경에서 그 사람을 파악하고 이해하지 못했다. 상대적일 개념을 나는 나도 모르는 새 절대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고 지내왔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 그 사람의 삶을 모르고서는 그 사람을 내 기준으로 판단 할 수도, 그래서 안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 팀원들과 나눔을 할 때마다 한명씩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나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팀원 언니, 오빠들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아 그 행동이 이랬기에 나온 행동이었구나...’ 살아온 삶이라는 것이 그 사람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 개인 소감\_폴리\_최경원 단원

2013년이 간다. 매년 매해를 보낼 때마다 슬프고, 아쉬웠다. 올해에는 이래서 아쉽다. 저래서 아쉽다. 모두 아쉬운 것 투성이였다. 항상 아쉽고, 벌써 한해가 갔다는 것에 슬펐고, 다음해에는 더 잘해야지 하는 것이 반복되었다. 그러나 올해에는 이상하리만큼 그런 아쉽고, 슬픈 감정이 들지 않았다. 아마도 한해를 행복하게 보냈기에 그런 것 같다. 아쉬움이 없을 만큼 행복했던 한 해... 아니 5개월..... 이 5개월 덕분에 2013년은 행복했다. 정말 많이 웃었고, 행복했고, 내 자신도 변했다. 라온아띠가 되어서 방글라데시에 와서 만난 새로운 친구들, 우리 팀원들을 만난 것은 내 생애 최고의 행운이다. 정래오빠, 지현오빠, 도은언니, 브루슬리, 플록, 미텔, 프로시드, 오코이, 아디또, 사쿠, 쌀칭, 젤란또, 오누바, 린다, 스위트, 뜨립또, 히라몬, 아그립, 지온, 링컨, 링쿠, 똑뚜기, 핑키, 쇼일리, 샤이키, 티오, 친모이 등등! 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2013년 12월 31일을 함께 보내고, 2014년 새해를 같이 맞을 수 있어서 행복하다. 한해를 보람차게 보냈다는 것을 20년 인생을 살면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것 같다. 올해가 가는 것이 아쉽지 않다. 오히려 내년이 기다려진다.

## 개인 소감\_폴리\_최경원 단원

19살 아무것도 모르고 공부만 해야하던 고 3시절... 내가 이렇게 방글라데시에서 행복하게 지내는 것을 상상이라도 했을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 그 시절을 돌이켜 보면 웃음이 난다. 그래, 상상조차 못했었지... 그저 수능만을 위해, 그리고 대학생활만을 꿈꾸었다. 그러나 아무도 상상조차 못하게 나는 방글라데시로 훌쩍 떠나왔다. 그리고 이곳에서 내 '진짜' 행복을 찾았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올해는 정말 행복하게, 활기차게, 보람차게 잘 보냈다. 이제는 지금으로서는 상상조차 못할 내년이 기대가 된다. 또, 그 미래에 가서는 과거에는 상상조차 못할 일들이 일어난 것을 생각하고는 지금처럼 웃겠지? 이제는 미래가 두렵지만은 않다. 내가 개척해 나가는 것이니까... 항상 생각한다. 나의 인생은 한편의 소설과 같다고... 아무것도 써있지 않은 책에 내가 한 장씩 나의 인생을 채워가고 있다.

## 개인 소감\_폴리\_최경원 단원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라온아띠 언니, 오빠들! 그리고 나와 1달을 더 같이 보낼 나의 사랑하는 방글라데시 친구들! 아쉽게도 1달밖에 안 남았지만 그 한 달 후회 없이 행복하게 지낼게요. 모두 함께! 밤마다 떠날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지지만 그래도 아직 한 달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또 만날 수 있으니까 슬픈 생각은 잠시 저편으로 남겨두고, 지금은... 이 순간 순간 행복하게 지낼게요. 제게 이런 행복을 주셔서 모두에게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모두들 사랑합니다! 갑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방글라데시에서 새해를 맞이할 कलि 경원.









돈.노.뱃!